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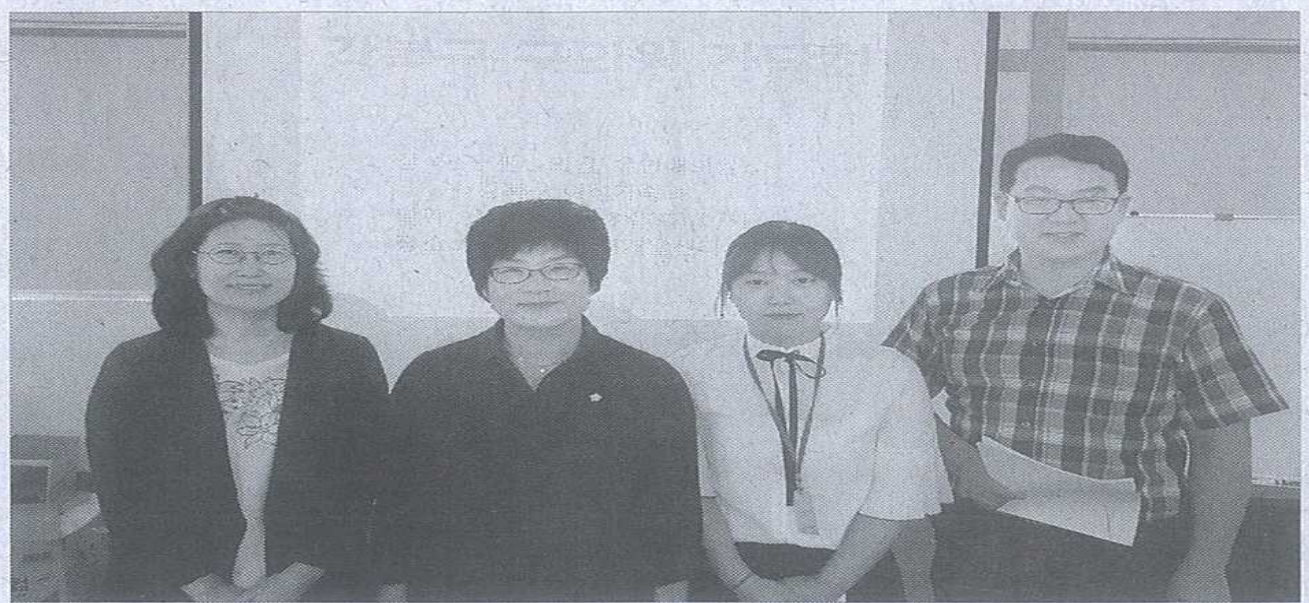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는 8일,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연구회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간담회 개최

강북구 일자리 활성화·창출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 진행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에 의원)는 지난 8월8일,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9년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소한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직원과 60여명의 직업 훈련 강사가 각종 직업 능력 개발, 취업지원, 전문적인 직업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부터 센터의 연혁과 조직, 설립목표 등 기관현황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 등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그 후,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여성친화기업,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연계를 통한 취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연구회에서는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등의 구청 소식지 홍보협력 강화, 지역 산업체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기관 간 구인·구직 협력방안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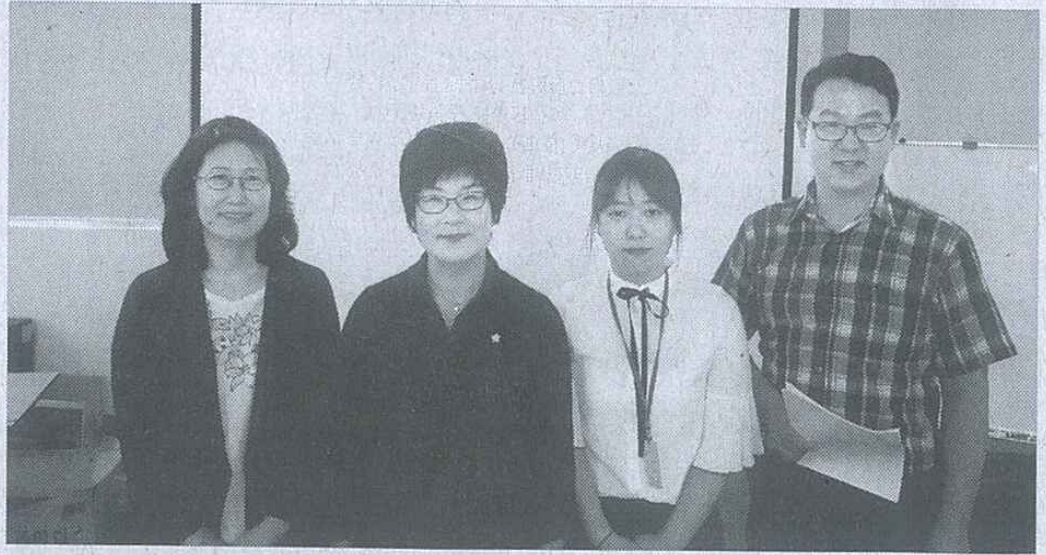
다음 일정으로 연구회는 중·장년 취업 현

황 분석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연구회,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간담회

일자리 창출 위한 협력방안 논의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애 의원)는 지난 8월 8일,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9년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소한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직원과 60여명의 직업 훈련 강사가 각종 직업 능력 개발, 취업지원, 전문적인 직업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부터 센터의 연혁과 조직, 설립목표 등 기관현황과 함께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 등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그 후,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여성친화기업,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



▲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애 의원(좌2)와 구본승 대표의원(우)

로의 연계를 통한 취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연구회에서는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등의 구청 소식지 홍보협력 강화, 지역 산업체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기관 간 구인·구

직 협력방안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다음 일정으로 연구회는 중·장년 취업 현황 분석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북구의회 일자리 연구회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애 의원)는 지난 8일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9년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소한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직원과 60여 명의 직업 훈련 강사가 각종 직업 능력 개발, 취업지원, 전문적인 직업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회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

부터 센터의 연혁과 조직, 설립목표 등 기관현황과 함께 직업능력 개발, 취업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 등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그 후 질의응답을 통해 관내 여성친화기업,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연계를 통한 취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 결과 연구회에서는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등의 구청 소식지 홍보협력 강화, 지역 산업체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기관 간 구인·구직 협력방안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일정으로 연구회는 중·장년 취업 현황 분석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영일 기자

지역연합 10면(2017. 8.14일자)

강북구의회 일자리 연구회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애 의원)는 지난 8일,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9년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문을 연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직원과 60여명의 직업 훈련 강사가 각종 직업 능력 개발, 취업지원, 전문적인 직업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관내 여성친화기업, 영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연계를 통한 취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등의 구청 소식지 홍보 협력 강화, 지역 산업체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기관 간 구인·구직 협력방안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 일정으로 연구회는 중·장년 취업 현황 분석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방문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윤은자 기자yej388@naver.com